

일본의 주거환경개선 사례 정책연수 보고서

- 기 간 : '2015. 03. 09 ~ 13.(4박 5일)
- 방문국 : 일본(아키타, 아오모리)
- 연수자 : 충청남도, 시군, 연구원

본 보고서는 비공식 미출간 보고서로, 정책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한 보고서임.

연구자는 출장 시 습득한 자료로 기초하여 작성한 것으로, 가능한 한 자료 출처 등을 명시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일부 표시가 누락된 자료는 인터넷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수집된 자료로 출처 확인이 어려웠음을 밝혀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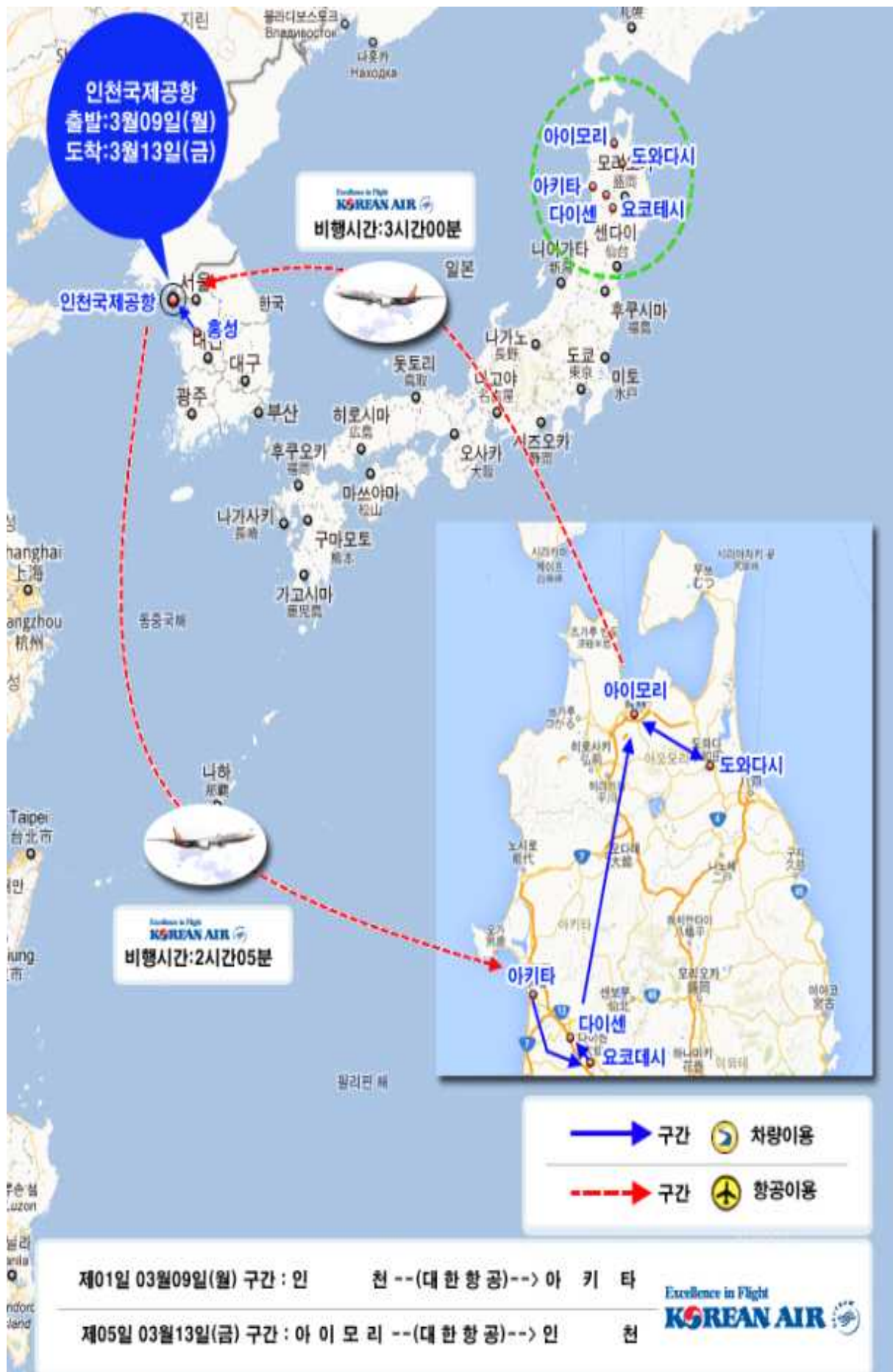
이 자료는 비출간 자료이므로 참조만 하고, 공식적인 문서나 도서에 인용을 금지하며, 인용 시에는 보다 정확한 근거를 찾아 활용해주시 바람.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임준홍 연구위원

< 주요 연수 일정 >

방문기관(현장)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키타 시 도시정비부 (도시계획과) ○ 아키타 시민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정책의 기획 및 종합조정,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 도시 정비부에 관련된 업무진행 ● 80점포가 늘어서 있는 아키타 시민시장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쓰레기처리 시설을 활용하여 -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유기농비료), 스티로폼 재활용 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키타현 요코테시 마스다 지구 ○ 아키타현 요코테시 (쓰카스자와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례 견학 ● 도시와 농어촌간의 공생과 교류를 도모하는 그린 투어리즘 사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키타현 다이센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차원의 빈집정비 사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오모리현 현도정비부 도시 계획과 방문 ○ 도와다시 관광상공부 관광추진과 관광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오모리현 도시계획, 토지, 구획정리, 마을만들기, 도시공원 등의 다양한 계획을 추진 ● 아트라는 주제로 마을만들기에 도입하여 사람들이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든 성공사례



< 주요 일정 경로 >

일본의 주거환경개선 사례 정책연수 보고서(안)

< 목 차 >

[아키타현]

1. 아키타시의 도시재생사업 : 中通一丁目地区第一種市街地再開発事業
2. 아키타시 시민시장
3. 요코테시 마스다 전통건조물군 보존지구
4. 자연과 미소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린투어리즘의 마을 고향 오모리
5. 다이센시의 빈집정비 대책

[아오모리현]

6. 아오모리현의 공원 및 도시계획 우수 사례
7. 도와다시의 예술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Arts Towada’

* 본 출장보고서 초안은 출장 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작성한 자료로 향후 보다 명확한 출처 확보·정리 등을 통해 최종 공개할 예정입니다.

1. 아키타시의 도시재생사업 : 中通一丁目地区第一種市街地再開発事業¹⁾

아키타시는 시가지 재개발사업과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중심지(도심)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교류”를 키워드로 아키타시 니기wai 교류관(秋田市にぎわい交流館), 현립미술관(秋田県立美術館)을 건설하고, 외부공간에는 니기wai광장(にぎわい広場)을 통해, 시민의 새로운 교류공간을 형성 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시간은 중고등학생들이 하교할 시간할 시간임에도, 교류관 안에는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여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본 사업지구는 많이 분포한 현과 시의 공유지를 활용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었으며, 도심거주를 목적으로 맨션을 건립하여 도심공동화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술관은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의 건축설계로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었다.

우리 충남도도 국공유지를 활용한 재생사업추진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명확한 컨셉(예, 교류 촉진)을 만들고, 지역 건축가 등과 연계하여, 건축물과 공간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으면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사업개요

- 사업지구는 아키타시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에 정하는 구역의 중앙에 위치해 북측은 히로코를 통해 치아키 공원에 블록 중앙은 아키타 역에서 연결되 중소로에, 서쪽은 아키타 중앙 도로의 중앙 블록 출구 램프, 남쪽은 중앙 거리에 접하고 약 1.7ha의 지구이다.
- 사업지구는 아키타시 중심시가지에 있음에도 대규모 미이용지, 노후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합리적이고 건전한 토지이용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공공시설, 상업시설 및 주택 및 주차장을 중심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광장 등 공공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도심공간의 창출과 모이고, 둘러볼 수 있는 상업 환경의 제공, 편리성이 높은 양호한 주택환경을 만들어 도심주거환경을 창출하고, 나아가 넓은 아키타 현민 및 아키타 시민들의 번영과 다세대 교류의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중심 시가지의 상업 활성화 및 도심 거주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실시하였다.
- 재개발 사업은 소유주들이 조직하는 조합인, "나카도리 1초메 지구 시가지 재개발 조합"의 조합 시행의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1) 본 내용 중 특별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아키타시 방문(2015.3.9.) 방문시 제공된 설명자료와 akita-nakaichi.com/redevelopment/자료를 참조하여 재작성한 것임



<그림> 아키타시 중심시가지 활성화구역

<표> 사업경위

平成 8年度	1月	日赤・婦人会館跡地等再開発準備組合発足
		秋田中央道路都市計画決定
平成10年度	11月	日赤病院が郊外へ移転
平成12年度	7月	中通一丁目地区第一種市街地再開発事業都市計画決定
平成14年度	12月	事業計画(案)の臨時総会承認と秋田市への提出
	12月	商業床取得会社「秋田まちづくり株式会社」設立
平成18年度	6月	中通一丁目地区第一種市街地再開発事業推進協議会の設置
平成22年度	12月	施設建築物建設工事着手
平成24年度		権利変換計画の軽微な変更届出（第3回）
平成25年度	4月	中通一丁目地区市街地再開発組合解散認可

(시행 전)



(시행 후)



<그림> 사업지구의 개요

- 사업의 흐름



□ 아키타시 니기와이교류관·니기와이 광장(秋田市にぎわい交流館・にぎわい広場)

- 현이 정비하여 새로운 현립미술관과 함께 이 지구 진흥과 다세대 교류의 핵심 시설로 시민의 예술·문화 활동, 학생의 교류, 육아 지원 거점 공간으로 정비하였다.
- 사업주체 : 아키타시 / 시행자 : 아키타시 / 토지소유자 : 조합 --> 아키타시
- 사업기간 : h23년 4월 - 24년 6월
- 부지면적 2,300㎡, 연상면적 5,200㎡, 건축면적 1,600, 층수 지상4층/지하1층
- 주요 시설과 기능 : 공익시설(활기 교류 시설:다목적 홀, 전시 홀, 연구실, 다목적 실(뮤직 공방, 퍼포먼스 공방), 아트·영상·음향 공방, 방, 거리 발견·발신 스테이션, 키즈 스테이션, 교류 공간, 오픈 공간, 카페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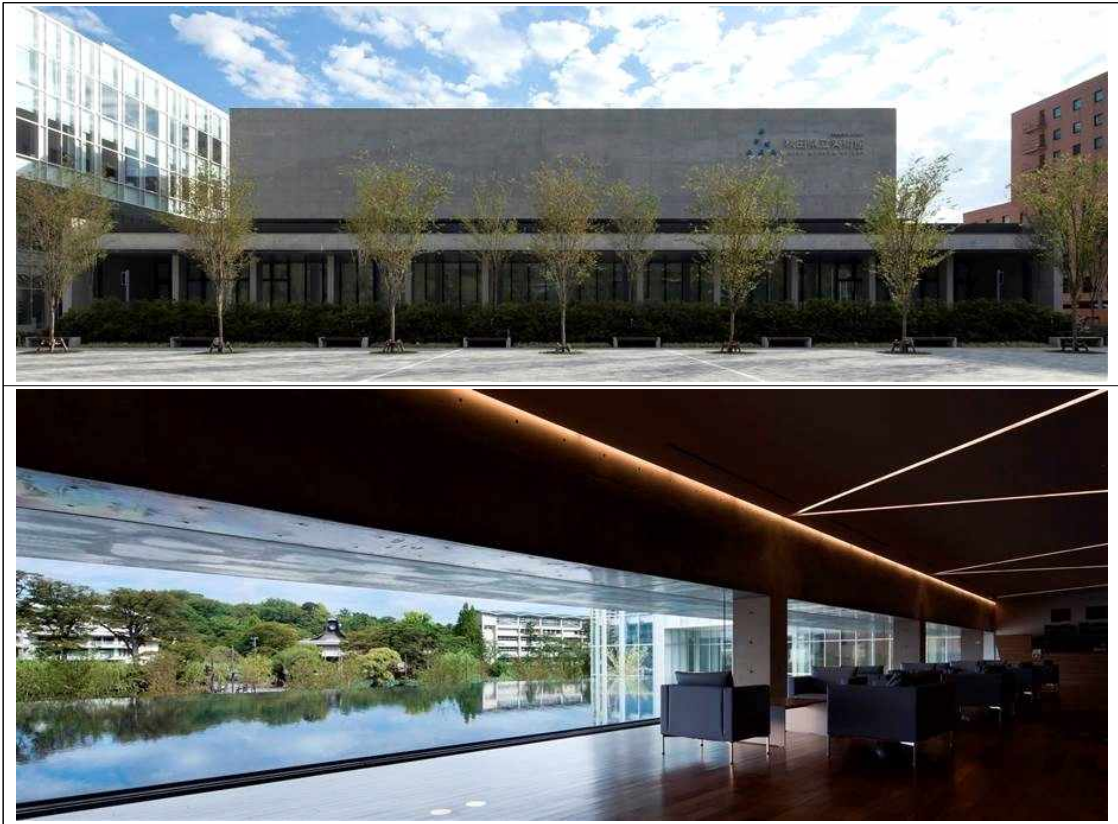


* 사진 : 秋田市にぎわい交流館 홈페이지

(<http://www.akita-nigiwai-au.jp/photogallery/611.html>)

□ 아키타현립미술관(秋田県立美術館)

- 현립 미술관은 공익 재단 법인 히라노 마사요시 미술 재단의 후지타 츠구 하루 작품을 전시하는 것과 동시에, 현민이 신변에 예술을 즐기는 문화를 키우는 것에 따라 아키타의 거리 사람 문화의 창조와 공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후지타 츠구 하루 작품이 문화의 창조
- 예술에 애정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
- 새로운 거리의 문화의 상징으로 거리, 사람, 문화의 공생
- 아키타의 문화적 힘의 발신
- h21 미술관 기본계획을 만들고, h22년 건축을 착공하여, h24년에 건축을 준공하여, h25년 9월 개관하였다.



- 설계 콘셉 : 아키타 현립 미술관은 폭 20m남짓에 이르는 "아키타의 행사"를 비롯한 공익 재단 법인 히라노 마사요시 미술 재단 소장하는 작품의 전시를 메인으로 하며, 아키타 시의 중심 시가지에 있는 치아키 공원을 원하는 땅이라는 특징을 살려"여기 밖에 없는 매력 있는 미술관"을 컨셉으로 설계되었다. 또 옛 현립미술관의 최대 특징인 시민의 마음에 녹아 있는 삼각형 지붕에 호응하듯이 삼각형을 모티브로 디자인 되었다. 설계자는 독학으로 건축을 배우고 프리츠커상, 문화훈장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안도 다다오이다.
- 벽의 지주나 기둥 없는 나선 계단 물 정월시에 천주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가 해방감 있는 라운지 공간, 그리고 미술관과 거리를 잇는 큰 삼각형 취발케의 입구 홀 등 새로운 현립 미술관에는 많은 볼거리가 있다. 전시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사계절의 표정을 느낄 수 있다.
- 미술관에 들어가서 바로 눈에 띄는 나선 계단은 벽의 버팀목이나 기둥이 없다. 햇빛이 들어 삼각형의 천장이나 천연 화강암 바닥으로 구성되어 흰히 트인 홀을 볼 수 있다. 큰 유리창부터 영화 스크린을 보듯, 각각의 계절로 변화하는 경치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물 정원을 통해 보이는 외부경관은 마치 하나의 큰 벽화를 보는 느낌이며, 이 곳 소파에 앉아 커피와 케이크 등을 주문하면서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건축 설계 : 安藤忠雄建築研究所
- 시공자 : 清水建設株式会社
- 건설기간 : 平成23年1月~平成24年6月
- 연상면적 : 3,746.66㎡ / 건축면적 : 1977.21㎡ / 최고높이 : 19.217m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터 - 층수 : 지상 3층 / 지하1층

2. 아키타시 시민시장2)

아키타시 중심시가지와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아키타시 시민시장이 있다. 우리의 건물형 재래시장과 유사하며, 지금의 모습은 몇 차례의 리모델링한 모습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일이어서 그런지 손님은 많지 않아, 영업이 활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의 시장과는 다르게 깨끗이 정리된 모습, 상품 하나하나에 친절하게 가격과 원산지 등을 설명한 것이 눈에 들어온다.

특히, 시민시장은 시장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상인 스스로 재처리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상인들의 높은 환경적 의식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관련 홈페이지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市場の取組

環境に対する取り組み

秋田市民市場は環境に対して
「1.生ゴミリサイクル」
「2.発泡スチロールのリサイクル」
の2つに取り組んでいます。



食育に対する取り組み

秋田市民市場では、市場の旬の食材を使った
食育(料理)教室を開催しています。
将来を担う子供達に「食べ物」に対する関心を深めてもらう事を
目的とした「食育教育」に取り組んでいます。



秋田市民市場 1Fフロアマップ



3. 요코테시 마스다 전통건축물군 보존지구

아키타현 요코테시에는 일본의 옛 전통건축물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스다 전통건축물 보존지구'가 있다. 에도시대의 거리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이곳은 국가가 인정한 보존지구이다. 대표적인 쌀 생산지인 아키타현의 옛 모습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이 지구에는 아직까지 술공장과 창고가 있고, 술공장에서는 아직까지 전통적 방법으로 술을 제조하고 있으며, 거리 곳곳에는 그 시대의 부를 상징하듯이 많은 대규모 창고와 목조구조물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고층(3층) 건물이 관광객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이 중 일부 건축물은 건축주가 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요코테시에 기증하고, 시가 관리하고 있다. 그 외에 거리 곳곳에는 크고 작은 건축물과 의미 있는 공간들이 산재되어 있다.

특히, 수확의 계절인 10월에는 마스다 '창고의 날' 축제를 통해 평소 공개되지 않는 역사적 건조물까지 특별히 공개되면서, 그 들의 전통적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다.



□ 국가의 중요한 전통건축물군으로 선정

- 일본 굴지의 폭설지역인 아키타현 요코테시에는 역사적 건조물이 많이 남아 있는 '마스다 거리'가 있다. 이 거리는 요코테시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된 지구이며, 국가의 중요한 전통건축물군으로도 선정되었다. 풍설 등으로부터 창고를 보호하기 위해 안채로부터 이어지는 사야라는 건물에 폭 뒤덮인 안창고는 눈이 많은 지역 특유의 건물이다.
- 마스다거리는 요코테시의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우슈가도(羽州街道)에서 남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재향마을이다. 도시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방도 108 호선(클래식로드)을 중심으로 한 남북으로 약 420m, 동서으로 약 350m의 범위가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보존지구로 선정 되어 있다.

- 이 지역은 근세에서 근대에 걸쳐 유통·상업의 거점으로 번영 한 지역이며, 에도시대(江戸時代)부터 마을구획이 남아 있고, 길가에는 박공구조(切妻造) 맞배처입(切妻造妻入)형식의 주옥이 늘어서있다³⁾. 각 집안의 폭은 5 - 7 사이 정도로 좁고, 한편 길이는 50- 70 사이와 장대한 직사각형 부지이기 때문에, 주옥뒤에 내장(うちぐら)라는 칼집부 토장을 연결하여 폭설지대(豪雪地帯)에 대응한 장대한 내부공간을 확보하고 있다⁴⁾.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보존지구 선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점과 동북지방에서 몇 안 되는 상가의 거리 풍경이 잘 남아있는 점이 주목되었다⁵⁾.
- 덴켄제도(伝建制度) 출범이후 '거리보존' 주목적이 되어 왔지만, 건물의 외관에서 알 수 없는 '내장'이라는 내부 구조가 높게 평가된 점에서 마스다의 거리의 덴켄지구(伝建制度) 선정은 획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표> 국가의 중요한 전통건축물군 선정 경위

平成11年	増田町商工会(当時)が中七日通りを「くらしっくロード」と銘打つ
平成13年	(有)佐藤養助商店が漆蔵資料館の営業開始を、内蔵を公開。
平成14年	増田地域センター運営協議会発足 日の丸醸造(株)、勇駒酒造(株)が登録有形文化財に。
平成15年	文化財協会が内蔵の調査・写真撮影開始
平成17年	1月 写真集「増田の蔵」発刊 佐藤又六家が登録有形文化財に登録され、この頃から一般公開を開始。 10月 合併により増田町は横手市へ
平成18年	5月 「蔵の会」発足 11月 第1回「蔵の日」開催
平成19年	10月 写真集「増田の蔵」2冊目の刊行
平成20年	「歴史的建造物調査事業」実施
平成21年	中七日通りに観光案内所(蔵の駅)設置
平成22年	伝統的建造物群保存対策調査開始 7月 伝統的建造物通年公開の開始 蔵の日がリニューアル、実行委員会主催となり、主屋も公開対象に。 旧石平金物店取得
平成23年	旧石田理吉家取得 11月 旧石田理吉家・旧石平金物店公開
平成25年	7月1日 横手市増田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に指定 12月27日 国の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に選定






* 자료 : http://www.city.yokote.lg.jp/tokusetsu/masuda/01_history/index.html

- 도시의 소유인 관광 물산 센터를 제외하고는 공개 된 가옥은 현재에도 소유자가 거주하거나 점포로 영업하는 것이다. 소유자의 협력과 호의에 의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게시 날짜 및 공개 방법 등을 각 가정에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 일정을 확인하거나 관광 물산 센터에 문의해야한다.

3) “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の選定について”. 文化庁. p. 3 (2013年10月18日). 2014年3月2日閲覧。

4) “横手市増田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解説”. 秋田県. 2014年3月2日閲覧。

5) “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の選定について”. 文化庁. p.1(2013年10月18日). 2014年3月2日閲覧。

			
 <p>観光物産センター蔵の駅 (旧石平金物店)</p>	 <p>旧石田理吉家 (市指定文化財)</p>	 <p>佐藤又六家 (国登録有形文化財)</p>	 <p>佐藤三十郎家 (国登録有形文化財)</p>
<p>주요 공개 시설들</p> <p>관광 물산 센터 소장 역 (구 평시 철물점)</p> <p>이전 이시다 理吉 집 -시 지정 문화재</p> <p>사토又六집 - 등록 유형 문화재</p> <p>사토 三十郎 집 - 등록 유형 문화재</p> <p>旧勇駒 주조 - 등록 유형 문화재 (예약 필요)</p> <p>石直 상점 - 등록 유형 문화재</p> <p>谷藤 집 -시 지정 문화재</p>		<p>사사하라 집</p> <p>山吉 비료 업체</p> <p>산 吉助 상점 - 등록 유형 문화재</p> <p>升川 상점 - 등록 유형 문화재</p> <p>사토 다시마 점</p> <p>사토 多三郎 집 -시 지정 문화재 (예약 필요)</p> <p>일장기 양조 - 등록 유형 문화재 (예약 필요)</p> <p>사토 요스케 상점漆蔵자료관 - 등록 유형 문화재</p> <p>구 무라타 약국</p>	

* 자료 : http://www.city.yokote.lg.jp/tokusetsu/masuda/01_history/index.html
http://www.city.yokote.lg.jp/tokusetsu/masuda/04_open/index.html

□ 중요 전통적 건조물 군 보존 지구 데이터

- 선정 범위 : 아키타현 요코테시 마스다쵸 마스다혼쵸우, 마스다혼쵸우, 주나가 및 주 7리마치의 각 일부
- 종별 : 재향 마을
- 면적 : 약 10.6 헥타르
- 보존 지구 도시 계획 결정 고시 연월일 : 2013 년 7 월 1 일
-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보존지구 선정 일자 : 2013 년 12 월 27 일
- 선정 기준 : 전통적 건조물군 및 획지(地割)가 잘 구태(旧態)를 유지하고있는 것
- 전통적 건조물 및 환경 부동산의 특정 수 : 143 건 (헤세이쵸 25년_2013_ 12 월 27 일 현재)

- 전통적 건조물 (건축물) - 119 건
- 전통적 건조물 (공작물) - 9 건
- 환경 리스팅 - 13 건
- 지정 문화재 (건조물)
 - 국가 등록 유형 문화재 - 18 건 40 동 (덴켄지구伝建地区외 1 개 포함)
 - 요코테시(横手市) 지정 문화재 - 7 개 10 동 (덴켄지구외 1 개 포함)

□ 역사

- 마스다지구의 기원은 조지(1362년) 연간 오가사와라(小笠原氏)씨가 현재 요코테시립마스다 초등학교 부근에 마스다성을 마련한 것이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⁶⁾ 이 성은 겐나(元和) 연간에 파괴되었다. 한편, 마스다는 羽州街道를 넘어 서있지만, 테클라가도(手倉街道)와 小安街道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연호(寛永)20년(1643년)에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마스다의 아침시장이 시작되는 등 아키타 번(秋田藩) 남부 유통의 거점으로서 번창하게 되었다⁷⁾. 겐로쿠(元禄)16년(1703년) 그림지도에 거리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늦어도 18세기 초반에는 마을의 골격이 성립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⁸⁾. 현재 남아있는 거리는 에도시대(江戸時代)말기 마을확지를 답습되었다⁹⁾.
- 메이지(明治)이후에도 번영은 이어져, 생명주(生糸)와 잎담배의 집산지이며 주조업(酒造業)의 생산지로도 발전했다¹⁰⁾. 메이지(明治)28년(1895년)에는 현재 北都銀行(hokuto bank)의 원류에 해당하는 마스다 은행이 설립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마스다 수력전기회사가 설립되는 등 많은 회사 조직이 설립되어¹¹⁾ 전성기를 맞이했다. 마스다거리를 특징짓는 "내장(内蔵)"은 모든 전쟁전의 구축되었고, 그 대부분은 메이지(明治)시대부터 다이쇼(大正)시대에 걸친 것이다. 메이지(明治)38년(1905년)의 奥羽本線 전체 노선이 개통되어 교통 체계가 변화하고, 지역시장이 전국시장에 통합되기에 이르러 서서히 상권이 축소되어가다 다이쇼(大正)4년(1915년)에 요시노광산(吉乃鉱山)의 광상이 발견되어 전쟁에 걸쳐 번영이 계속되었다¹²⁾.
- 한편 "내장(内蔵)"을 가진 전통건축물군이 지역 자원으로 재발견되고, 관광지화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은 늦게 생겨나 실제로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이다. 평성(平成)13년(2001년)에 사토요스케(佐藤養助商店)상점에 옷(漆)창고자료관의 공개로 시작하여, 이듬해 히노마루 양조(日の丸醸造) 용구주조(勇駒酒造)가 국가등록유형문화재로 등록되었고, 내장(内蔵)이 있는 거리가 마스다 특유의 지역자원으로 다시 인식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전환기가 된 것이 평성(平成)17년(2005년)의 사진집 '마스다창고'가 발간이었다.¹³⁾ 이듬해부터 지역주민의 협력을 통해 내장(内蔵)을 가진 주택을 특별히 일제히 공개되어 '창고의 날'

6) “横手市増田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解説”. 秋田県. 2014年3月2日閲覧.

7) “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の選定について”. 文化庁. p. 3 (2013年10月18日). 2014年3月2日閲覧.

8) “横手市増田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解説”. 秋田県. 2014年3月2日閲覧.

9) “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の選定について”. 文化庁. p. 3 (2013年10月18日). 2014年3月2日閲覧.

10) “横手市増田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解説”. 秋田県. 2014年3月2日閲覧.

11) “横手市特設サイト『増田～蔵のある町～』 - 増田の歴史”. 横手市. 2014年3月2日閲覧.

12) “横手市増田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解説”. 秋田県. 2014年3月2日閲覧.

13) “横手市特設サイト『増田～蔵のある町～』 - 増田の歴史”. 横手市. 2014年3月2日閲覧.

행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스다시가 요코테시에 합병된 것도 이와 같은 움직임은 꾸준히 진행되어, 평성(平成)21년(2009년)의 마스다관광물산센터 '소장의역이'개설되었고, 헤세이(平成)25년(2013년) 7월에 요코테시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으로 같은 해 12월에 국가의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선정에 이르렀다.

□ 상가 구조와 '내장(内蔵)'

- 마스다의 거리는 역시 "창고의 마을"로 알려진 倉敷, 川越, 喜多方등과는 달리, 걸으면서 볼 수 있는 창고는 불과 몇 채에 불과하다. 단순히 낡은 상점안쪽에 화려한 내장(内蔵)이 숨어있는 것이 마스다의 큰 특징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 전술한 바와 같이, 마스다지구의 마을구획은 거리에 접해있고, 직사각형모양(短冊状)의 부지가 나뉘져 있고 각 상점의 主屋가 접하고 主屋후면에 "내장"(うちぐら)라는 칼집부토장이 연결되어 있다. 이 내장은 "칼집(さや)"라는 主屋과 일체가 된 창고에 덮여 있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 부지내에 배치된 거리에 접하는 측면에서 主屋·칼집부착창고·정원의 순으로 올라가는 것이 많고 ¹⁴⁾ 정원은 '외장(とぐら)'라고 불리는 별도의 창고가 마련된 예도 많다¹⁵⁾. 부지 뒷면이 골목길에 접하는 경우 대로에 접하고 문과 널판장(板塀)이 설치되어 있고¹⁶⁾ 각 집은 '큰길(表通り)' '측면·골목 거리(側面・路地通り)' '골목길(裏通り)'에서 세 개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거리에 접하는 "主屋"는 맞배지붕의 처마가 들어간 것이 많고, 박공장식(츠마카자리)으로는 화장양이나 화장술이 드러나 있고, 더욱 거대한양수(梁首)를 내밀고 있고 두공(斗拱)과 기바나(木鼻: 뿔목) 등 사찰건축을 연상시키는 장식도 보인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장식이며 건물의 구조와는 관계가 없음)
- 2층 창문에는 '안대가리개(霧除け)'라는 작은 차양을 내고 전통 서까래와 부채 서까래 "두채 (ふたのき)" 등 장식성 높은 것도 많다. 박공의 " 蠼羽(루우) "는 한칸 남짓하고 매우 깊고, 건물의 표정에 음영을 주는 한편, 처마는 한 척에서 두 척 극히 짧다. 이것은 아키타현 지방의 상가에 많이 볼 수 있어 최고의 폭설 지역인 마스다에서는 특별히 발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적은 입안 방 팔작지분 용마루에(興文堂쇼지서점)와 목조 3층의 主屋(구. 石田理吉家이시다리키치가), 토장구조의 상점창고 (구.무라타약국, 구.사사호랑이포목) 등 도 볼 수 있다. 내장(内蔵)뿐 만 아니라 이러한 전통적인 상가의 모습을 많이 남아있는 점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 주옥(主屋)내부는 건물 남쪽을 통과하는 토방이 가로지르고, 입구에서 가게, 거실, 수옥(水屋)등이 연결되어 토방과 접하고 마당에서 마련해 채광을 도모하는 등의 수법도 볼 수 있다. 주옥(主屋)에서 용마루가 이어져 있는 칼집(覆屋)이 이어져 있어 높은 통풍구조의 구라마에가 되어 거대 생활공간을 구축하고 있고, 연결된 토방 가장 안쪽에 내장(内蔵)을 배치하는 것이 마스다 일반 상가의 구조이다.

14) “横手市増田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解説”. 秋田県. 2014年3月2日閲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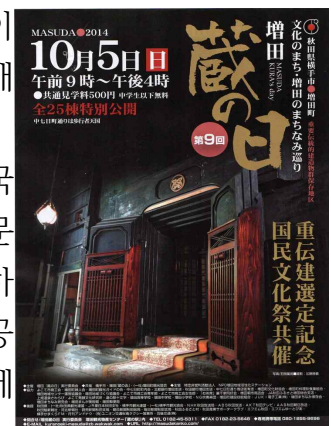
15) “横手市増田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解説”. 秋田県. 2014年3月2日閲覧.

16) “横手市増田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解説”. 秋田県. 2014年3月2日閲覧.

- 일반적인 내장 구조는 앞뒤로 걸갈리칠(掛け子塗り)문을 설치하고, 벽은 윤이 검은 회반칠을 하고, 벽면 하부 및 문은 "칼집장식(鞆飾り)"이라는 옷칠한 나무들이 배치되어있다¹⁷⁾ 18). 문의 주름상자는 5단계에 이르는 것도 있으며, 광택을 날 정도로 닦인 검은 회반죽, 공예품 같은 화려한 칼집장식 등 건축·미장은 기술의 영역을 넘어 예술적일 수 있다.
- 창고의 구조는 느티나무, 밤나무, 소나무 등의 좋은 목재를 충분히 이용하여 다섯치수 5분의 통시주(通し柱)를 벽면에 한척 간격으로 뻗뻗이 진열한 내장도 보인다. 들보는 거둬대들보와 부피를 같은 일본 집들로부터 트러스구조까지 다양한 건축연대에 의한 기법의 차이를 비교할 수 도 있다. 이러한 기둥이나 대들보를 옷칠로 마무리한 내장도 지금도 건축 당시의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다고도 생각 사치의 극에 달하는 창고 건축이 가능했던 것도, 칼집 덮인 내장이라는 특수한 구조 있어서의 것일 것이다.
- 용도는 물품이나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문고소장’과 당주나 가족의 사적공간으로 사용되는 ‘다다미방창고(座敷蔵)’로 대별된다.¹⁹⁾ 전자는 전면 마루, 후자는 1층 안쪽을 다다미로 내부를 2개로 나누고 있다²⁰⁾. 다다미방 쪽의 수가 많고 문고창고를 나중엔 다다미방 창고에 개장한 것도 많이 볼 수 있다.²¹⁾. 그러나 사찰이나 양조장에서는 다다미방 사용되는 것도 문고창고라고 불리우는 예도 있다고 한다²²⁾.
- 현재 16동 (중 3동은 사전 예약제)가 공개되어 견학이 가능하다.

□ 축제 · 이벤트

- 마스다의 아침 시장 : 간에이(寛永)20년(1643년)에서 35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아침시장. 근교의 농가나 상점에서 100여개가 입점한다. 매월 2·5·9에 개최.
- 창고의 날 : 10 월 4 일 ~11 월 3 일에 개최되는 ‘제 29회 국민문화제/아키타2014’에서는 이 ‘거리’를 무대로 지역 생활 문화를 포함한 문화 활동이 소개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마스다 ‘창고의 날’은 10 월 5 일 (일)에 개최되어 평소 공개되지 않는 역사적 건조물 등도 특별 공개됩니다.²³⁾ 그 외에 지역이벤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의 판매 등이 실시된다. 2006년(平成18년)에서 시작되었다.



17) “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の選定について”. 文化庁. p. 3 (2013年10月18日). 2014年3月2日閲覧
“横手市増田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解説”. 秋田県. 2014年3月2日閲覧。

18) “横手市特設サイト『増田～蔵のある町～』 - 増田の内蔵豆知識”. 横手市. 2014年3月2日閲覧。

19) “横手市特設サイト『増田～蔵のある町～』 - 増田の内蔵豆知識”. 横手市. 2014年3月2日閲覧。

20) “横手市特設サイト『増田～蔵のある町～』 - 増田の内蔵豆知識”. 横手市. 2014年3月2日閲覧。

21) “横手市特設サイト『増田～蔵のある町～』 - 増田の内蔵豆知識”. 横手市. 2014年3月2日閲覧。

22) “横手市増田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解説”. 秋田県. 2014年3月2日閲覧。

23)

<http://ja.wikipedia.org/wiki/%E6%A8%AA%E6%89%8B%E5%B8%82%E5%A2%97%E7%94%B0%E4%BC%9D%E7%B5%B1%E7%9A%84%E5%BB%BA%E9%80%A0%E7%89%A9%E7%BE%A4%E4%BF%9D%E5%AD%98%E5%9C%B0%E5%8C%BA>

- 마스다의 봉오도리 : 8 월 16 일 개최. 사다 하루 연간 마스다 성축성에 즈음하여 성주의 딸이 제물로 바쳐진 비화에서 유래된다.
- 마스다 불꽃놀이 - 9 월 14 일 개최. 2014년(平成26년)에서 90회가 됨
- 마사토공원 대야 노젓기 대회 - 4 월 29 일, 8 월 16 일 개최.
- 3군데 신사 범천 축제 - 2 월 중순 개최.

4. 자연과 미소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린투어리즘의 마을 고향 오모리(쓰카스자와 마을 등)- (오모리마치 그린투어리즘 추진협의회, 농림수산대신상 수상)

아키타현 요코테시의 오모리마치에는 '오모리마치 그린투어리즘 추진협의회'가 있다. 시의 작은 지원을 바탕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림수산대신상을 수상하였다.

오모리마치지역은 쌀로 유명한 지역의 특색을 살려 쌀 농사의 옛날 농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도시민에게 함께하고 있다. 특히, 쓰카자와마을은 13세대 30여 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소규모 농촌 취락마을로, 다랭이 논의 아름다운 농촌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사계절 도시민 교류 체험활동을 통해 도시민과 함께하고 있다.

도시민이 작은 농촌을 찾아 주는 것에 감사함을 갖고, 농업을 마치 국가 기간산업과 같이 생각하면서 식량주권의 마음으로 자부심 있게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 리드의 애착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농업의 대를 잇지 못하고, 공무원생활을 하게끔 한 모습에서 현실과 이상의 갈등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날은 봄인데도 불구하고 녹지 않은 눈과 3월에 내리는 눈으로 다랭이 논 등 아름다운 농촌 모습을 하얀 눈으로만 본 것이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1) 지역의 연혁

- 오모리마치 그린투어리즘추진협의회가 있는 요코테시는, 헤세이(平成)17년 마스다마치, 히라카거리, 오오노가와거리, 오오모리마치, 주몬지거리[十文字町], 야마우치마을, 타이유마을이 합병해서 생긴 시이다. 동쪽으로는 오우산맥(奥羽山脈), 서쪽으로는 데와구릉[出羽丘陵]에 둘러싸인 요코테분지 중앙에 위치해 총 면적이 6만 9천 ha이다.
- 시내에는 남쪽의 국도13호 및 유자와(湯沢)요코테도로, 동서에는 국도107호 및 아키타자동차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현의 남부의 중심도시이다. 이러한 고속교통네트워크의 정비에 의해 도시주민과 농·산촌주민의 상호교류의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해지고 자연환경과 생활문화, 전통산업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공동·교류가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둔 대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 시내를 흐르는 오모노가와나 그 지류의 요코테강, 나루세강, 카이제가와 유역에는 광대하고 비옥 경지가 확산되면서, 토지이용형 농업에 뛰어난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며 농가수나 농업매출액이 현의 전체 15%를 차지하는 농업이 주요 산업이다. 또한 현내에 있는 많은 폭설지대와 일부 지역은 특별 폭설지역으로 지정되어 등 동절기 적설량이 많고, 봄에는 이 눈이 농업용수가 되어 논밭을 적시고 있다.



그림 35 아키타현 위치도

2) 마을만들기의 개요

(1) 지역 특색

- 오오모리마치 그린투어리즘 추진협회가 소재하고 있는 구,오오모리마치는 요코테시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데와구릉(出羽丘陵)의 산림이 넓게 퍼져 있고, 동쪽으로는 오오모노강(雄物川)이 흐르고 있다.
- 일조량이 좋은 경사지에는 국산와인 중에서도 고품질을 자랑하는 ‘오오모리 와인’용 포도밭이 펼쳐져 있다. 또한, 작은 골짜기에는 예전부터 이어져온 계단식 논도 확산되어 있다.

(2) 마을만들기 기본특징

① 마을만들기 동기와 배경

가. 거리가 중심이 된 도시농촌교류활동

- 오오모리마치는 1970년대(昭和50年代) 무렵부터 동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 JA 야채부와 표고버섯부 등의 멤버가 농원에 수도권 소비자를 초청하여 농업체험을 시작하였다.

나. 생활연구그룹협의회 활동

- 농촌여성으로 구성된 오오모리마치의 생활개선그룹은 지역내에 흩어져있었지만, 구성원의 고령화에 의해 활동이 정체되었다. 1992년(평성4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개의 생활개선그룹에서 주요멤버를 뽑아 마을의 한 개의 그룹으로 통일하고, 40명의 회원으로 오오모리지역생활연구그룹협의회(이하 그룹)를 설치하였다. 그룹은 도시의 소비자와 교류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동사무소와 연계하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했다.
- 1993년, 동일 지명으로 인연이 된 도쿄도 오타구의 JR오오모리역상점회와의 교류를 시작
- 1994년, JR오오모리역상점회 주최 '제9회 오오모리 다마다마 마쓰리'참여. 농산물 판매를 통한 도시민과의 교류
- 1996년, 오타구 주최 구민축제 'OTA 교류축제'참여, 농산물 판매 및 시식행사
- 1997년 새로운 게이힌급행오모리역전상범회 '공영회'와 교류를 시작. 그룹 구성원이 공영회 주최 섬머페스티벌에 참여. 공영회가 오오모리마치의 산업축제에도 참가하여 상호 교류가 시작됨.
- 1998년, 도시와 농촌 교류에 선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와라비자(わらび座)'(아키타현 센보쿠시)에서 도내중학생의 농업체험의 수용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룹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고 있다. 농업과 떨어진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교류는 긴장되지만. 점차 아이들도 마을을 열고 서로 본래의 웃는 얼굴을 보여주게 되었다.
- 2001년, 오타구와 오오모리마치 양쪽 지역의 라이온스클럽이 교류를 시작함. 여름휴가에 오타구오오모리마치에서 어린이 시골체험 실시함.

다. '미미회(味美会)'활동

- 그룹에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 작은 그룹이 나뉘어져 활동을 시작하였다. 소비자와의 교류의 중요성을 느낀 3명의 회원이 도시의 소비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만남의 깊이를 강화하고, 1999년 4월,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제공하는 '미미회'를 발족했다. 농산물의 제공처는 현도 아키타시로 결정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과 풋워크가 효과 있게 '만원박스(야채 등)'을 구성원의 트럭으로 택배하는 형태로 시작하였다.
- 소비자 15인으로 시작한 활동은 3개월 후에는 소문으로 50명으로 늘었고 이후 해마다 2001년 100명, 2003년 120명에게 배달하였다. 2주에 1회, 또한 매주 실시하는 등 교류의 빈도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비정기적이던 것을 2주에 한번으로, 이어 매주 실시하는 등의 교류회수가 높아졌다.
- 이 택배활동은 2003년(평성15년)에는 상호교류가 발전하여 그룹 구성원이 아키타시의 소비자에서 제빵을 배우는 등, 수년간 소비자를 오오모리마치에 초대하여 교류회 등을 진행하게 되었다.



写真1 味美会1,000円バック

라. 선진지역 견학과 협의회 설립

- 이러한 움직임이 쌓여서 ‘동네대응’ ‘생활연구그룹협의회대응’ ‘미미회에서 대응’을 협쳐 지역의 그린투어리즘활동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기운이 높아졌다.
- 또한 1999년(헤세이11년)부터 수차례 마을조성을 받아 그룹원이 유럽형 그린투어리즘 견학을 실시하는 등의 학습을 거듭한 결과, 유럽에 대응한 갑작스러운 추적이 아닌 오오모리의 땅에 발을 붙인 꾸준한 활동을 쌓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2002년에는 그룹원을 중심으로 한 17명의 멤버와 JA 등의 농업 관련 단체, 마을 상공관련단체 등에서 오오모리 그린투어리즘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립하고 같은 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마. JA, 상공단체 등의 탈퇴

- 협의회 설립이후 2005년(헤세이17년)까지 상호협력하여 왔다. JA등 농업관련단체, 마을상공관련단체에서 지향점에서 차이에 의해 탈퇴하겠다고 신청하였다. 위기감을 느낀 회원들에서 ‘백성만이 이후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는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까지의 활동이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배우게 된 것, 만난 아이들에게 용기나 힘을 얻고 있는지 등을 재인식하고 스스로 활동의 활로를 찾아냈다. 또한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2인의 회원이 그린투어리즘 강사 인증을 받거나 지역 특산물 개발을 위한 가공소를 개설한 회원도 나타났다. 이러한 회원의 의욕 향상에 따라 지역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회원의 가장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 이렇게 ‘아이들을 장사 도구가 되지 않고, 오오모리의 진심어린 수입을’이라는 모토로 연간 50~100명의 수학여행 학생 수용을 통해 협의회 활동의 재건을 할 수 있었다.

바. 농가민박 개업

- 2009년(평성21년) 11월에는 회원 한사람이 새로운 노력으로 ‘농가민박 인진원(仁真園)’의 영업을 시작했다.(요코테시 최초) 인진원에서는 포니와 닭, 토끼 등을 사육했고, 조랑말 승마 체험 등 특색있는 메뉴를 갖추고 있다. 농사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는 인진원은 교류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사. 다랭이(계단식)논 오너제도 활용

- 2010년(헤세이22년)에는 현 사업을 활용해 ‘계단식논 오너 모집 투어’를 전개하고 있다. 년 4회, 계단식 논에서 농사나 교류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계단식 논을 보전하는 도우미를 모집하는 것으로 협의회로 농지보전에 한발 나아간 활동을 시작했다.
- 사업을 전개하는 지역은 12채가 선조에서부터 이려운 13ha 의 계단식 논밭을 계속 지키고 있는 八沢木塚須沢集落에 있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회에 활동에 동참하여 새로운 모임에 가입한 사람도 있다.



写真2 ポニー乗馬体験



写真3 八沢木塚須沢集落の棚田

아. 기타 활동

-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횡수도 회원도 꾸준히 늘면서 인근지역과 함께 신청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회를 개최하는 등 오오모리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요코테시 전체로 신청체제 정비를 위한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다.

3) 마을만들기 추진체제

가. 협의회 조직체제, 구성원 특징

- 체험신청의뢰는 요코테시 오오모리 지역국 창구를 통해 신청하고 회장이 정보를 취합한다. 회장은 협의회 간부와 상의 후 신청여부와 다른 멤버들과 함께 할당할지 등으로 추진하면서 전체를 이끌고 있다. 협의회 회원은 현재 30명으로 한번에 80여명의 농업체험희망자 등을 신청가능하다.

나. 연계한 다른 마을만들기 조직-단체 및 행정기관과의 관계

- 2009년(평성21년)부터 신청이벤트행사로 메밀국수(そば打ち)체험 등을 의뢰받아 NPO법인 '숲의소바'는 그 이후에도 활동제휴하고 있다.
- 또한 지역숙박시설인 '호로와산 소년자연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활동(대나무 젓가락, 대나무 피리, 대나무 잠자리 자연물공작, 가오리연, 라미네이트 책갈피), 도예, 우동터널 등의 배달강좌나 지역 양조장인 '비젠주조(備前酒造)'견학 등 다른 단체들과의 제휴에 의해 다양한 메뉴를 구축할수 있게 되었다.

第2図 むらづくり推進体制図



그림 39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도

4) 마을만들기의 특색과 우수성

(1) 마을만들기의 성격

① 풍부한 체험메뉴가 뒷받침된 그린투어리즘의 전개

- 초등학교 수학여행 등의 농사체험 신청을 중심으로 오타구(大田区)와 상호교류와 아키타시의 소비자의 식재료 제공 등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농사체험뿐 만 아니라 지역음식문화 소개나 승마, 밭줄낚시, 야산체험 등의 멘가 추가되어 해마다 활동 내용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것이 반복되어 현재의 그린투어리즘의 모델적인 존재가 되었다.

② 옛마을의 각 조직이 연결되어 도시전체에서 체험형 교류 진흥

- 예전부터 행정을 주도하면서 이루어 온 도시들과 교류활동에서 더 나아가 생활연구그룹전체의 활동과 작은그룹 활동, 협의회 설립후의 농사 체험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등 여러 조류를 묶어 지역에서 그린투어리즘의 큰 흐름이 되었다. 이후에도 농촌여성의 활동은 유연하고 발상력을 살린 소년자연의집의 배달강좌, NPO법인의 찾아가는 소바치기체험 등의 색다른 흐름으로 행해지던 활동을 확충하고 있다.
- 지금은 행정은 완전한 배후가 되었고, 협회원의 주체적 활동이 마을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

③ 다음세대와 연결되는 꿈이 있는 마을만들기

- 2010년(평성22년)부터는 현의 사업으로 활용하는 ‘계단식논 오너’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 이는 그 동안의 인적, 정신적 교류 중심의 활동에서 지역의 농지를 보전함으로써 농촌 유지활동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고, 협의회활동의 새로운 대응으로 향후 전개가 특히 주목된다.

(2) 농업생산 특색

① 협의회원들의 경영개선

- 그 동안의 활동은 소비자와의 교류확대에 의한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액 설정은 소비자의 의향에 맞도록 결정되었다. 평균적으로 1인 숙박요금은 농사체험비 4,000엔 전후와 재료비 1,500엔으로 총 5,500엔으로, 2009년(헤세이21년)에 432명을 받았으며 연간 2,376만엔 정도의 지역 내 수입이 되고 있다. 농업외 수입이 있는 것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받은 금액 이상으로 대접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겼다.
- 또한 ‘미미회’와 가공소에서는 제조·판매 활동에 의해 연간 7,800천엔 정도가 지역 수입이 되고 있으며, 농업체험비와 같이 농가 수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공소에서는 쌀가루를 사용한 ‘쌀가루카레’나 ‘쌀가루파운드케이크’ 등을 만들어서 2008년(헤세이20년)에 인근 지역의 동료들과 같이 아키타 전통음식 ‘오자키반죽(こぎき練り: 뭉갠 찹쌀을 끓여 설탕과 식초로 양념한 것)’을 다음세대에 전승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현대식으로 어레인지(arrange)하여 상품화하였다.
- ‘연소(恋咲)’라는 상품명으로 2009년(헤세이21년)에 아키타현 특산품 개발 콘테스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写真4 商品化した「恋咲」

② 후계자 육성확보

- 최근 농촌부(農村部)에서는 농업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오오모리의 그린투어리즘의 활동 성격상 젊은 주부나 아이들이 참여하여, 가족단위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아져 2세대, 3세대를 아우르는 활동으로 농업 체험이 가능하고 이러한 일은 후계자 육성에도 계속되고 있다.

③ 고령자와 여성의 경영참여

- 농업체험이나 수학여행 신청은 신청받은 농가의 가족 전원은 협력으로 가능하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고령자는 농촌 전통문화 이야기꾼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채소절임과 같은 체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들은 농업체험을 신청받을 때 특유의 부드러움 응대로 방문자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내고 추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식사제공을 하고, 고령자나 여성은 남성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생활·환경 정비 측면의 특징

① 환경미화의식 향상

- 체험자의 신청을 받아준 회원들은 사람들을 즐겁게 맞이하기 위해 집 주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체험자들을 맞이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역을 깨끗하게 하려는 의식이 싹트고 농가나 비농가 구별없이 지역적으로 집과 밭주변을 정리 미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가민박을 개업한 회원들은 집 뒷뜰에 약 60ha 의 산림을 조성하여 방문객이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거기에서는 자연관찰이나 곤충채집, 산나물 채취 등의 체험 메뉴가 운영되고 있고, 산도 몰라보게 정비되었다.

② 커뮤니티활동 강화, 도시주민과의 교류

- 모내기 체험등에서는 논 두렁길에 지역의 고령자들이 잠시 멈춰서 아이들을 미소지으며 지켜 보는 등 고령자들에게 삶의 보람을 만들어내고 있다.
- 이런 오오모리의 땅에 꾸준히 밟으면서 활동이 꾸밈없고 자연 그대로를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사람들의 교류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③ 지역정주 촉진

- 도시에서의 생활하던 마을 출신자가 퇴직후 부부가 같이 오오모리로 이주하고, 채소나 허브를 기르면서 본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에 사는 부부의 친구나 그들의 자녀들이 오오모리에 방문하여 농사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 부인이 마을에 상담한 후 협의회가 활동이 소개된 케이스도 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역의 고령자가 썩떡 만들기를 가르치는 등의 교류가 만들어져 2년 전부터 협의회에 가입하고 자신의 채소밭을 활용한 농사체험을 신청받게 되었다.
- 이 부부는 ‘도시에서는 사람과의 교류가 없었지만 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에 융화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 자연의 고마움을 체감할 수 있어 이주하게 되어 좋다.’ 라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5. 다이센시의 빈집정비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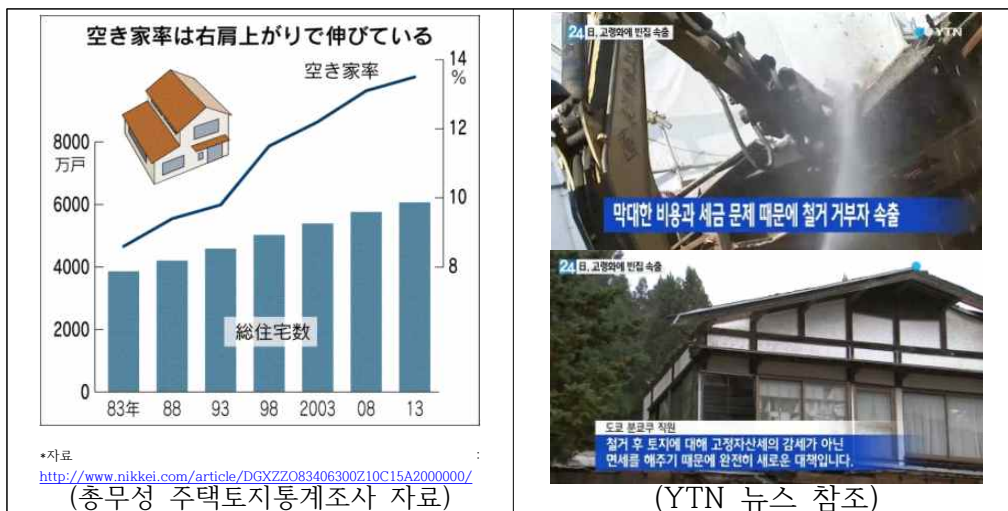
일본은 인구감소, 주택 물량의 확대 등으로 발생한 빈집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 최초로 빈집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유명한 다이센시의 빈집정비 대책이다.

다이센시의 빈집대책은 폭설로 인한 빈집의 안전성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빈집조사를 시작으로, 조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적 관리,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돋보인다. 그리고 최근에서는 빈집은 행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1) 일본의 빈집 현황²⁴⁾과 전망²⁵⁾

(1) 현황

- 일본 총무성의 주택·토지통계조사(5년 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빈집은 2013년 10월 시점에서 약 820만호(13.5%)이다. 이는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지방일 수록 심각하다.
- 이는 전회(08년)조사에 비해 빈집수는 756만채. 5년간 63만호 증가한 수치이다.
- * 독일의 빈집률은 1%정도, 영국의 빈집률은 4%정도, 일본의 주택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잉여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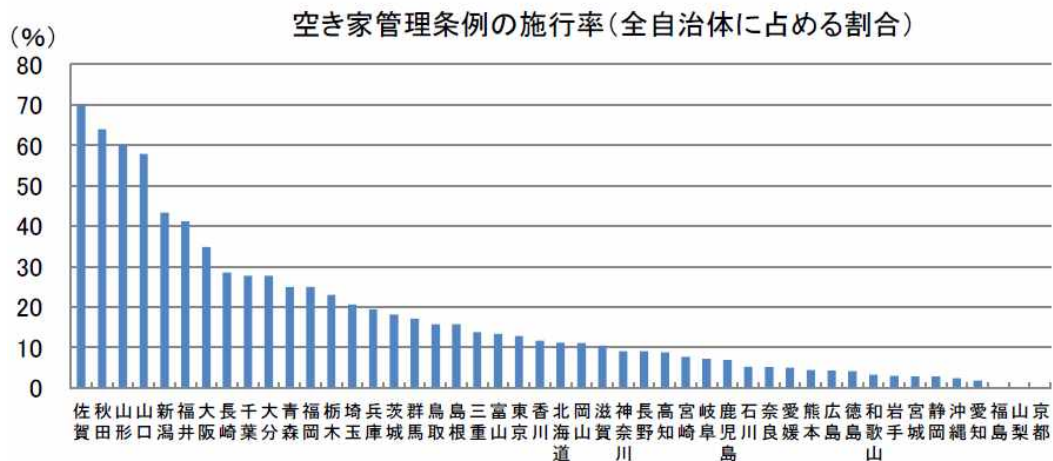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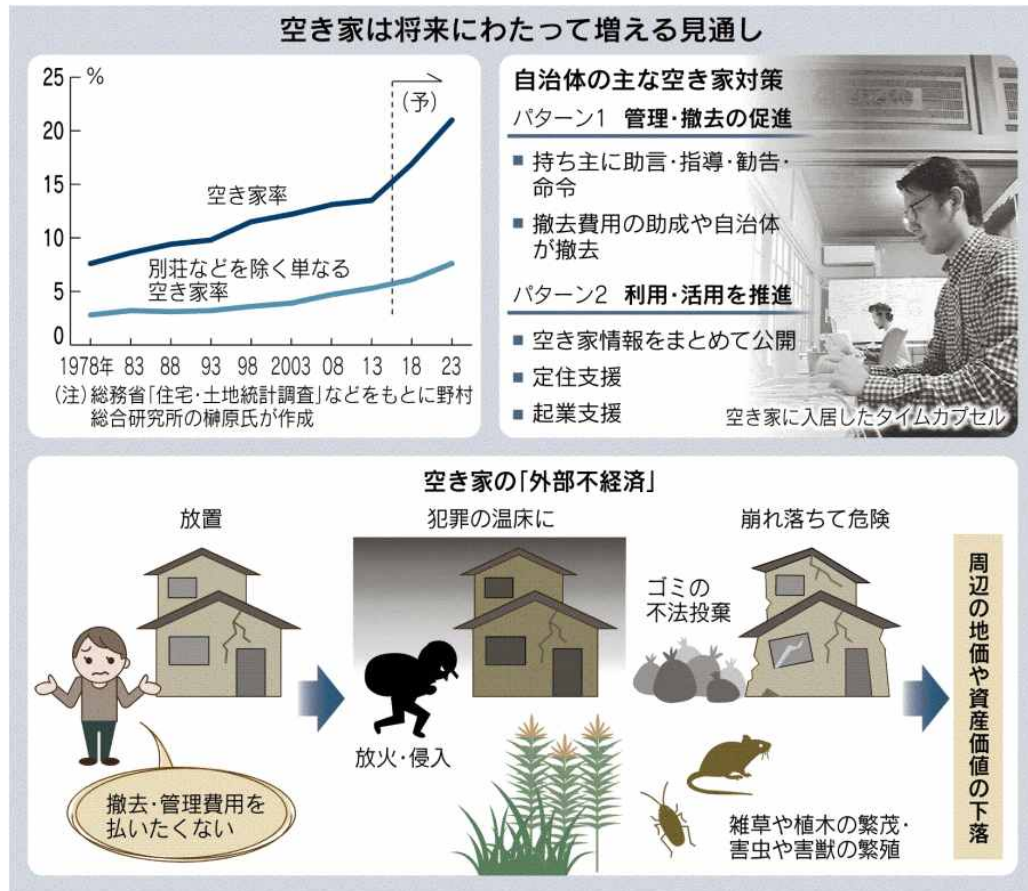


- 빈집 발생의 주요 이유로는 저출산 고령화, 철거비용(예, 5천만원 소요), 공터에 따른 세금 폭탄 등(일본 : 9채 중 1채 빈집(임대주택이 66%)) 등이 지적되고 있고 있다. 이러한 빈집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방화 등 범죄의 온상이 되거나 더 나아가 마을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와 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여 방재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등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 빈집정비에 대한 조례를 처음 시행한 자치단체는 도쿄 00구이며, 아키타현 다이센시는 “빈집 조례”에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실제 집행한 첫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도쿄도 분쿄구가 지난해 6월에 도입한 사업은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는 빈집에 대해 자치단체가 200만엔 상한으로 철거비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 조성하고, 철거부지에

24) <http://www.nippon.com/ja/currents/d00140/> 외 참조

25) <http://www.fujitsu.com/jp/group/fri/column/opinion/201503/2015-3-1.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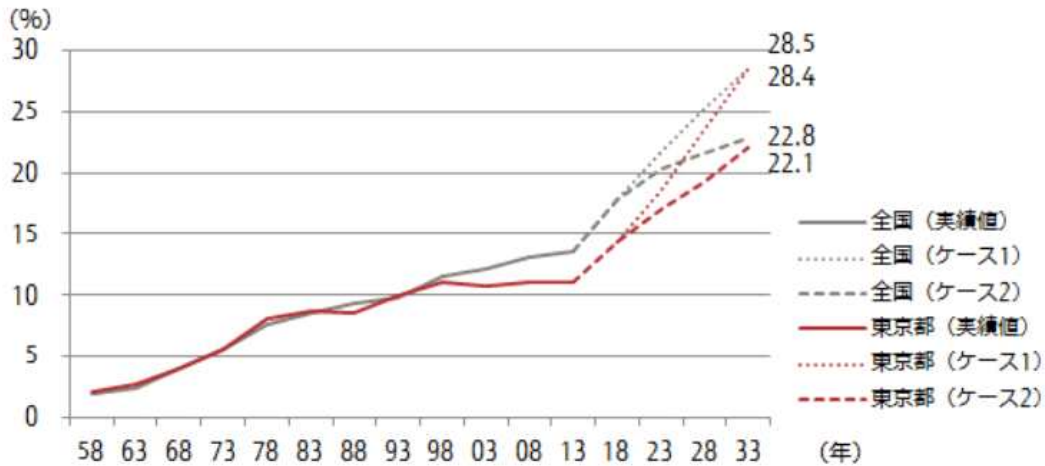
는 주차장, 광장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10년간 빌리는 방법으로 토지에 부가되는 고정자산세는 전액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2) 전망

- 향후 빈집의 증가는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연간 90만~100만채 정도를 유지한 신축 착공 호수를 60만채 정도로 떨어뜨렸다고 해도 40년에는 빈집률이 36%가 된다고 하는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발표하였다.
- 그리고 인구와 주택공급 측면에서 빈집을 추계한 결 일본의 빈집은 22.1% - 28.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 향후의 주택 수요, 즉 가구 수에 대해서는 국립 사회 보장·인구 문제 연구소 추계에

기초(일본 전국 가구 수의 피크는 2019년, 도쿄도의 세대수의 피크는 2025년으로 이후는 감소)하고, 공급 측면에서 신설 주택 착공 호수가 앞으로도 최근의 평균적인 수준이 유지되는 주택 해체의 페이스(멸실률)또한 최근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추이해 나가는 경우를 사례 1로 했다. 즉, 사례 1은 현상 유지이다.다음에 신설 주택 착공 호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 최종적으로 반감시켜 멸실률에 대해서는 점차 상승시켜 나가고 최종적으로 2배로 자라는 경우를 사례 2로 했다.



(出所)
総務省「住宅・土地統計調査(確報集計)」、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世帯数の将来推計(全国推計)」2013年1月、
「日本の世帯数の将来推計(都道府県別推計)」2014年4月により作成

- (注)
- 各ケースの想定は以下の通り
 [ケース1] 新設住宅着工戸数: 直近の平均的水準で推移。
 減失率: 過去10年間(2003~2008年、2008~2013年)の平均で推移
 [ケース2] 新設住宅着工戸数: 直近の平均的水準から5年ごとに段階的に減少し、最後の5年間(2029~33年)の水準はその半分の水準になると想定。
 減失率: 過去10年間の平均から段階的に上昇し最終的に2倍になると想定
 - 新設住宅着工戸数の直近の平均的水準は、2010~12年の平均とした。
 この3年間の平均としたのは、過去5年間のうち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着工落ち込み(2009年)と消費税率引き上げ前の着工増加(2013年)の特殊要因を除外するため
 - 減失率 = (5年間の新設住宅着工戸数の合計 - 5年間の総住宅数の増加数) / 5年間の新設住宅着工戸数の合計
 - 世帯数の予測は、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に基づく

2) 다이센시의 빈집 대책 사례 :

大仙市空き家等の適正管理に関する条例(H23.1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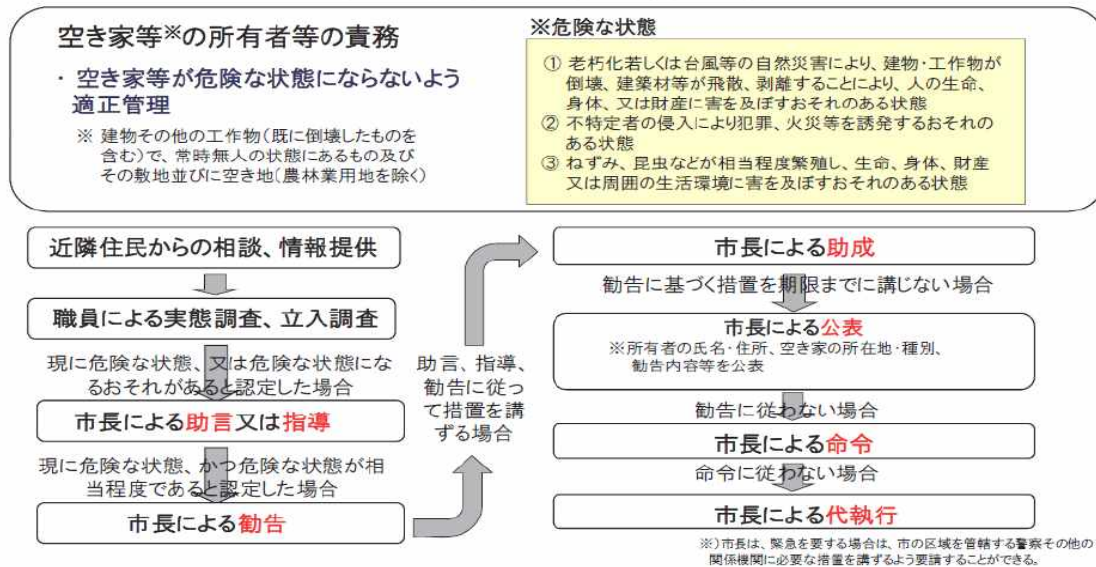
(1) 대책의 배경과 개요

- 다이센(인구 8만 2천명 정도)가 빈집에 많은 관심을 가진 계기는 폭설(매년 2M정도 눈이 싸이는 다설도시)로 인한 민원발생에서 시작되었다. H23년 눈으로 인한 186건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83건이 빈집문제였음. 다이센시는 H18년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의회에서 빈집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여, H22년 사이타마현 처음으로 빈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도쿄도 아다치구에서도 빈집 보조금에 대한 대책도 나옴. 이를 참고하여 다이센시도 조례를 만들음) .
- 조례의 목적을 보면 다이센시는 빈집 등의 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함으로써 붕괴 등의 사고, 범죄, 화재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안심인 생활 실현에 기여하

고자 하고자하는 것이다(조례 제1조 목적). 특히, 다이센시의 조례는 일본 자치단체 처음으로 빈집 철거를 위해 대집행한 점에서 타 자치단체와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으며, 대책의 적극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국 언론에 이슈를 받기도 하였다.

- * 조례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소유자 등의 책무, 정보제공, 실태조사, 공포, 보조금, 조언 및 지도, 권고, 대집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대집행 후 비용은 빈집 소유자에게 받음)
- 조례제정 후 시민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는 빈집의 수, 위험한 빈집의 수, 위험한 빈집 중 소유자가 없는 빈집의 수, 빈집의 처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大仙市空き家等の適正管理に関する条例



(出所) 国土交通省・すまいづくりまちづくりセンター連合会「空き家住宅情報 地方公共団体等による取り組み事例」

- 단순한 빈집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빈집 정보를 DB화 하고, GIS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 조사를 위해 해 조사원 8명, 사무원 2명을 고용하여 12월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1304건의 앙케이트 조사와 1415건의 DB화하였다.

空き家管理

空き家情報: 201202715104199000-6000052000400100000

所在地

所在地: 福岡市中央区
地番: 4-10
地番名: グループ

所有者氏名

所有者氏名:
連絡先1:
連絡先2:
子番1:
子番2:

建物等記録簿

建物番号:
建物種別: 住宅用(地上)
用途: 住宅用(地上)
面積(地上): 125.61
面積(地下):
床面積(地下):
登記有無: 有
登記年月日: 平成24年1月1日
延床面積: 41
管理有無: 有
管理団体: 福岡市住宅政策推進委員会
管理団体2:
子番1:
子番2:

管理依頼先

所有者管理不理由: 関係
管理状況:
氏名:
住所:
連絡先1:
連絡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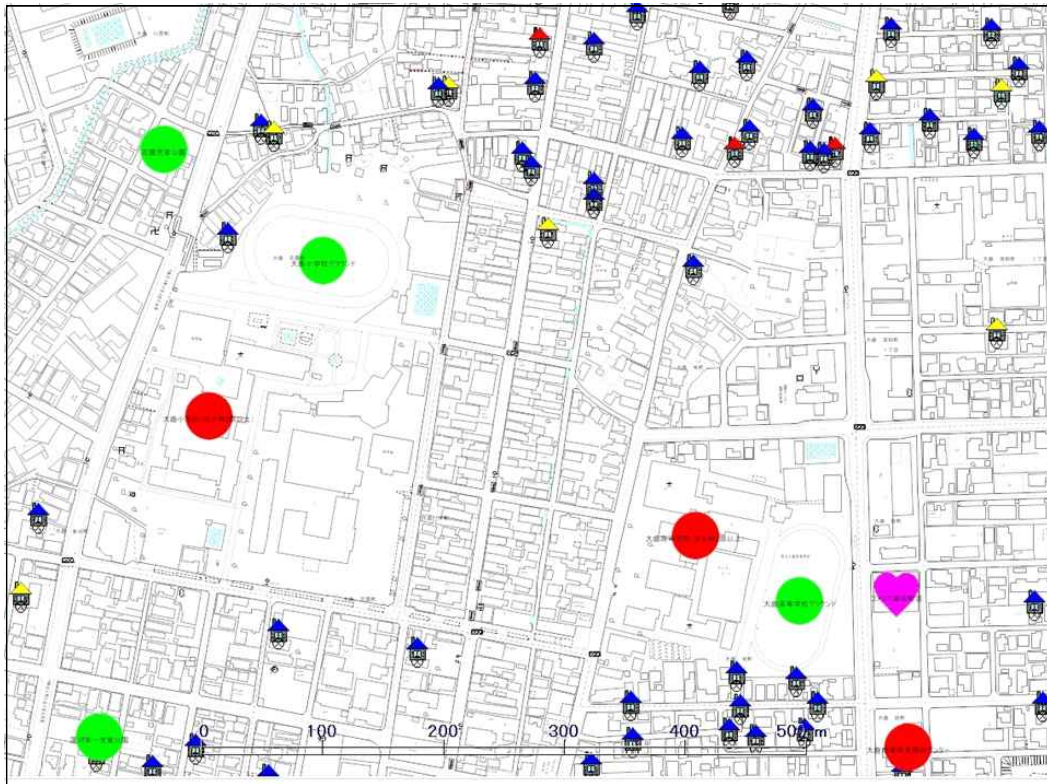
現地調査

調査年月日: 平成24年1月17日
調査状況:
調査状況メモ:
危険度: 非常に危険である
緊急度: 1ヶ月以内で対策を講じる必要あり
法的措置: 所有権者通知
法的措置メモ:
行政措置: 完了
行政措置備考: 平成24年3月5日～29日に解体・廃材撤去工事を完了する
措置履歴:
執行年月日: 平成24年2月6日
更新ID: 4
執行状況: 申請
執行年月日: 平成24年2月22日
更新ID: 5
執行状況: 代執行
執行年月日: 平成24年3月1日
更新ID: 6
執行状況: 代執行
執行年月日: 平成24年3月22日
更新ID: 7
執行状況: 完了
執行年月日: 平成24年4月16日
更新ID: 8
執行状況: その他
メモ: 平成24年3月1日解体代執行申請書。3月5日5時～代執行実施

関連するファイル

DMG_0104.JPG
DMG_0110.JPG
DMG_0113.JPG
DMG_0123.JPG
DMG_0125.JPG
DMG_0201.JPG
DMG_0211.JPG
DMG_0216.JPG
DMG_0227.JPG
DMG_0228.JPG
DMG_0229.JPG

ファイル名: DMG_0123.JPG



* 붉은 색 굉장히 위험한 빈집, 노란색 조금 위험한 빈집, 푸른색 비교적 안전한 빈집

(2) 주요 사례

① 사례 1 :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 *주민이 초등학교 주변 위험하다고 민원 제기

- 대집행실시일 : 평성 24년 3월 5일 오후 9시부터 * 일본 최초로 대집행(언론 관심 多)
- * 초등학교 졸업식 전에 철거
- 장소 : 센부크지역 후쿠다, 사무소·창고 등 5개동 철거
- 비용 철거공사 : 1,785천엔 / 4월 16일 소유주에게 청구





* 자료 : 다이센시 제공(2015. 3)

② 사례 2 : 보조금에 의해 철거

- 건축물 : 농촌부에 있는 온천지역과 인접해 있는 점포
 - 소유자는 30 여년 전에 점포를 닫고 다른 곳으로 이사감
 - 평성 24년 4월 4일 강풍으로 지붕 파손 등으로 안전을 위협
 - 소유자에 청구하고, 소유자(고령자)가 경제력이 약해 일부 부담(보조금은 최대 50 만엔 지원)
- 철거과정(H24년 4월 4일 - 8월 16일)



③ 사례 3 : 스스로 철거

- 건축물 : 건축물은 장기간 관리자가 없는 상태, 미등기 건축물, 소유자를 찾을 수 없었음. 눈으로 붕괴, 집 주인의 딸(70세)이 도쿄에 살고 있고, 경제적 여력이 있어 딸이 부담하여 철거(딸이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철거과정(H25년 3.1 - 4.30) :



④ 연계 사업 : 빈집은행 사업

- 다이센시 빈집은행제도요강을 제정(H24년 5월, 건축주택담당)하여 시공보 및 홈페이지에 ‘빈집등록’ 및 ‘이용등록’을 모집하고 있지만 실적은 많지 않음



(그림) 다이센시 빈집은행사업 플로차트

<표> 빈집은행사업 실적

년도	빈집등록(건)	이용희망(건)	성립(건)
H24	1	7	
H25	2	5	
H26	4	8	1

(3) 빈집 대책사업 실적과 향후 과제

- 총 철거 건수 223건
- 재거주 136건 / 신규 빈집 166건
- 정보 갱신 등은 자치회로부터의 정보에 근거한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 빈집 관리 지도를 각 마을 회관 등에 오르내리며 주민의 가시화를 꾀하는 것에서 반상회에서 빈 집 관리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다.

<표> 빈집대책사업 실적 (h24년 1월 1일 - h26년 3. 31일)

項 目	件 数			合 計
	H23年度	H24年度	H25年度	
相談・苦情	84	198	136	418
危険度調査	3	113	52	168
危険回避措置		20	20	40
立入調査(不良度)	3	37	42	82
助言・指導	3	42	51	96
勸 告	1	4	2	7
公 表	0	0	0	0
命 令	1	1	1	3
行政代執行	1	1	1	3
解体件数	1	115	107	223
うち助言・指導・命令・ 厳正管理依頼対応	1	44	17	62
うち補助金対応	0	19	14	33
うち行政代執行	1	1	1	3
修繕対応	0	3	1	4
自然倒壊	0	5	1	6
再 居 住	0	63	73	136
新規空き家	0	67	99	166
空き家件数合計	1,415	1,304	1,223	

※ (참고) 일본의 빈집대책의 방향

<표> 일본빈집대책의 방향²⁶⁾

状況	視点	ポイント
予防策	制度	• 固定資産税の特例措置や個人情報の共有・活用の制約等について、国レベルでの制度の検証が必要
	運用	• 窓口のワンストップ化や庁内連携会議の設置等、庁内連携体制の構築が重要
	公民連携	• 所有者等の意識啓発や地域との情報共有等、所有者及び地域との連携が重要
対応策	制度	• 空き家対策等、応急対策の法的根拠の整備が必要
	運用	• 財源や労力等の制約を勘案し、条例等の制度の運用を十分に検討することが必要
	公民連携	• 地域と連携した除却後の活用ビジョンの明確化と正当性の確保が重要
活用策	制度	• 地域特性に応じたエリアマネジメントのあり方を考えることが重要 • 空き家を含む「地域の土地利用ビジョン」の実現を支える法制度のあり方を検討することが必要
	運用	• 行政がエリアマネジメントを積極的に支援し、新しい「担い手」の信頼性を補完することが重要
	公民連携	• エリアマネジメントの「担い手」の存在が重要 • 継続的なエリアマネジメント及び住宅の維持管理を支援・規制する法制度のあり方を検討することが必要

26) <http://www.tama-100.or.jp/cmsfiles/contents/0000000/376/04daiyonbu.syourazoyu.pdf>

6. 아오모리현의 공원 및 도시계획 우수 사례

아오모리현에는 현에서 설치한 3개의 도시공원이 있다. 특히, 아오모리현 종합운동공원에는 선사시대의 유적구역이 있고, 인접하여 아오모리현립미술관이 있는 격조 높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한편, 시정촌 단위의 자치단체는 시민의 건강과 휴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공원들이 조성된다고 한다.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들이 네트워크형 컴팩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생활서비스기능의 배치와 인구밀도계획, 공공교통 확충 등에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형 주택공급, 안전과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한 공공디자인 등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주민학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현 주도로 계획하고 설치한 공원

- 아오모리현이 설치한 도시공원은 3곳이 있고 모두 현청소재지인 아오모리시에 설치되어있다. 총면적은 약 130만㎡이다. 그리고 시정촌이 설치한 공원은 842개소로 총면적은 약 19만㎡이다.
- 아오모리현 종합운동공원 중에 유적구역은 약 250억엔, 아오모리현립미술관은 약 110억엔 정도 소요되었으며, 아오모리현 종합운동공원의 운동기능이 신아오모리현 종합운동공원으로 기능을 이전하는 중이며, 그 총사업비는 약 651억엔이다.

■ 공원녹지사업대상지의 선정기준

- 도시공원정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있지 않지만, 현과 시정촌은 각각 도시공원의 정비에 대해 녹색기본계획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기초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현이 설치한 공원은 현민 전체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도로교통 등 광역적인 접근성을 고려하였으며, 아오모리시가 아오모리현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아오모리시에 광역공원이 설치되어있다.
- 시정촌이 설치하는 공원은 주민이 근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소규모의 공원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간규모의 공원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등 각각 공원의 기능을 생각하면서 입지장소를 선정하고 있다.

■ 공원이 설치되기까지의 주민참가

- 현이 설치하는 공원은 광역적인 이용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설치되는 시설도 대규모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어떤 시설을 지을지는 스포츠 관계의 단체에 의견을 듣고 있다.
- 또한, 2012년대 대규모 놀이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놀이기구의 선정에 있어서 주변 마을 자치단체 대표나 교육관계자를 선정위원으로서 지정하여, 공모를 실시하였다.
- 시가 설치하는 공원은 가까운 공원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원 주변의 주민에게 의견을 묻거나, 양케이트를 실시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공원설계 등에 반영시키고 있다.

■ 각 공원의 이용자수

-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연간이용자수의 데이터이다. 신아오모리현종합운동공원은 약 42만명, 아오모리현종합운동공원의 운동시설구역은 약 14만명, 유적구역은 약 28만명, 미술관은 약 37만명이다.

■ 공원 설치 후, 공원 관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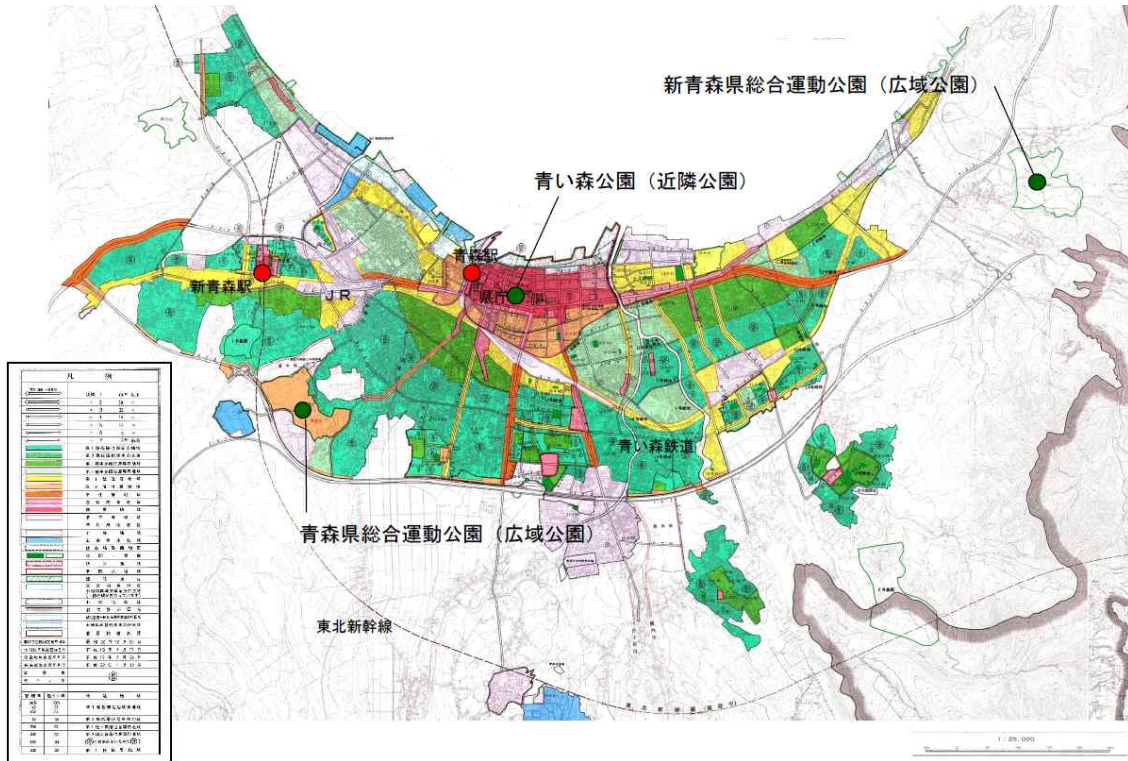
- 아오모리현 종합운동공원 관리방법 : 공원에는 운동시설구역, 유적구역, 예술구역이라는 3가지의 특징적인 구역이 있으며, 각각의 구역의 특성을 살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담당부국, 관광부국, 문화재부국이 분담되어 관리하고 있다.
- 또한, 아오모리현종합운동공원의 운동시설구역 및 신아오모리종합운동공원에서는 관리방법으로서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지정관리자제도라는 것은 공공시설의 관리를 주식회사 등의 민간사업자나 NPO단체 등에 맡길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민간사업자 등의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주민서비스의 향상 및 시설의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절감 등을 꾀하는 것이 가능하다.

■ 공원 설치 후의 주민참가 사례

- 산나йма루야마공원대 : 법인이나 개인으로 조직된 이 조직에서는 아오모리현종합운동공원 내에 산나йма루야마유적에서 유적내의 식물 등의 손질을 하고 있다.
- 아오모리현립미술관 등의 환경안전서포츠프스텝, 통칭 ‘잔디깎기부대’: 주로 시설근처의 주민으로 조직되어, 아오모리현종합운동공원 내에 산나йма루야마유적 및 아오모리현립미술관 주변의 환경정비 등을 하고 있으며, 주 1회 잔디깎기와 산나йма루야마유적 및 아오모리현립미술관의 이벤트를 서포트하고 있다.
- 아오모리시의 사례 : 공원주변의 주민으로 조직된 공원애호회이다. 공원주변의 주민으로 조직되어 공원 및 외주도로 등의, 청소나 제초, 도구의 파손이나 공원수에 발생한 병충해의 통보, 공원의 바른 이용에 대한 지도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오모리시에는 이러한 단체가 60~70여개가 있다.

■ 1인당 도시삼림면적

- 현에서는, 도시 내의 삼림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데이터가 없지만, 도시 공원의 목표로서, 주민 1인당 도시공원면적의 데이터는 있다. 아오모리현의 주민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약 17㎡로서, 전국평균이 1인당 10㎡이므로 아오모리현은 1인당 공원면적이 전국평균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현이 설치한 도시공원(3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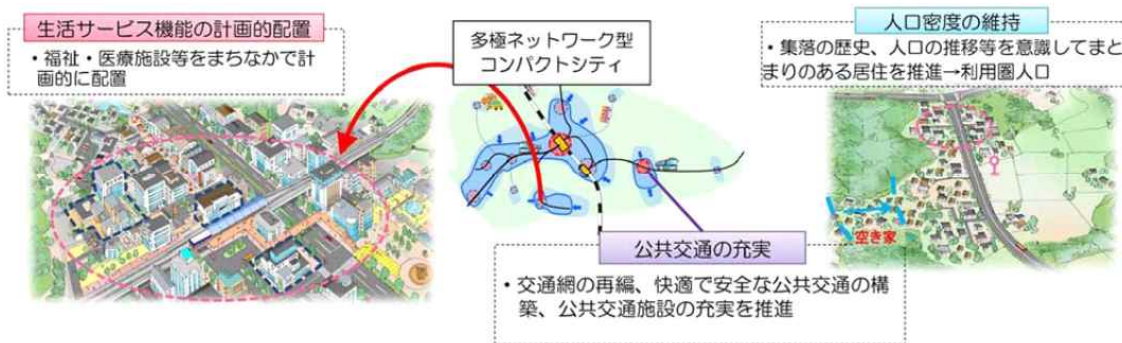
* 현 내부자료

2) 도시계획의 특징들

■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도시계획정책사업

- 아오모리현은 2040년까지 현내의 총인구가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생산인구가 45% 감소, 노년인구가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인구밀도를 일정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고령자가 자립하는 컴팩트시티의 실현이 필요로 되고 있다.
- 국가에서는 작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시정촌이 도시의 장래상이 되는 입지적정화계획을 책정할 수 있도록 컴팩트시티의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모든 인구를 주요한 역 주변 등에 집약시키는 일극집중형의 정책이었지만 각각의 지역에는 역사적인 배경과 사정이 있고, 모든 것을 일극집중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다극 네트워크형컴팩트시티를 목표로하고 있다.
- 의료, 복지, 상업 등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유도하는 도시기능유도구역과 주거의 집중을 꾀하는 거주유도구역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그러한 구역을 공공교통으로 연계시키는 것으로 중심시가지외의 교외부에도 복수의 주거유도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 이것을 실현시키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성에서는 도시기능입지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창설하였다. 이것은 공적부동산의 유효활용에 의해 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능 유도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정비할 때에 나라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서비스기능의 계획적 배치(복지·의료시설 등을 도시 안에 계획적으로 배치 등), 공공교통의 충실(교통망의 재편,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교통의 구축, 충실한 교통시설을 추진), 집락의 역사, 인구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주거 집중을 추진 등 다핵네트워크형 컴팩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핵네트워크형 컴팩트시티)

■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의 추진현황과 효과(대표적 성공사례)

○ 아오모리현내에는 5개도시에서 중심시가지활성화계획이 책정

- 아오모리시는 2012년 인정(2기 계획, 제 1기 인정은 2007년)되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각총리대신인정을 받았다. 걸어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질 높은 생활공간 '워커블타운'의 창조를 목표로 하여 주거와 상업의 활성화 등의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 미사와시(2007년 인정)는 글로벌하고 활기 넘치는 중심시가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중심시가지의 2가지를 목표로 활성화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 히로사키시(2008년 인정)는 옛날 성이 위치하고 있던 성하마을의 정취와 전통과 역사있는 축제와 마을, 산업도시로서의 활기, 먹을거리가 풍부한 하치노헤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마을로서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 토와다시(2010년 인정)는 예술문화가 산재하고 있는 중심시가지에서 시민과 관광객 등의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삶을 영위하면서 활기넘치는 활동을 실시하는 환경 만들기과 계기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 대표적인 성공사례

- ① 아오모리시 : 시장과 공방의 복합시설 에이팩토리(A-FACTORY)의 오픈에 더해 네부타를 연중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교류시설 '네부타의 집 와랏세'가 오픈하는 등 '워터프런트 지구'에서 새로운 활기가 창출되었다.

※ 연간 관광시설유입객수 2011년/2010년=1.6배(신칸센의 개통도 원인에 포함)



▲ウォーターフロント地区



▲フ・ラッセの内部

※年間観光施設入込客数 2011 年/2010 年=1.6 倍（新幹線の開業もあり）

- ② 하치노헤시 : 시민교류와 관광교류의 복합거점인 하치노헤 포터블뮤지엄 '하치'에의 내방자수는 1년째에 당시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약 85만명이 되어 현재도 연간 80만명을 넘는 페이스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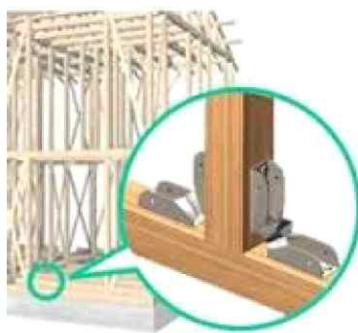
▲はっちの外観



▲はっちの内観

■ 주거환경(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대책

-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주거환경은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주택의 내진화와 에너지절약대책을 일층 강화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도입을 꾀하고 있다.



▲耐震化の一例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一例

■ 공공디자인의 관련정책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내용, 적용사례 등

- 개인이 '사회생활을 평범하게 보낸다', '회사에서 각각의 역할을 다한다', 그런 것이 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2003년 3월에 아오모리 유니버설디자인추진 기본지침을 책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 유니버설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민 한사람 한사람의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2003년부터 포럼을 3회 개최하는 외에 초등학교에 출장을 나가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의의를 알리는 출장강좌를 약 160회 실시하고 있다.
- 마을에 대한 적용사례 : 아오모리시의 신마치 (상점가 이름)에서 마을에서 쇼핑을 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서비스 실시, 마을을 즐길 수 있도록 궁리를 한 벤치의 설치, 고령자의 경우 보조없이 혼자서 마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스쿠터의 무료대출하고 있다.

○ 경관만들기 선진사례

- 양호한 경관만들기를 실시해나가기 위해 경관형성의 의식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구되고 있어, 감성의 형성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관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수강희망이 있는 초등학교에 경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평소에 자주 보는 풍경 속에서 숨겨져 있는 고향의 매력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 애착과 자부심을 갖는 마음을 기르는 경관학습을 실시하고 있다.(지금까지 2002년부터 연160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工夫したベンチ



▲貸出可能な電動スクーター

○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관련사업의 개요, 관련계획 조례, 지원사업등의 소개

- 범죄가 없는 누구든지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서 2006년에 아오모리현 범죄가 없는 안전 안심 마을만들기 추진조례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조례에 기초하여 범죄가 없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아오모리현 범죄가 없는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추진계획을 2007년에 책정했습니다. 5년마다 갱신하여 제 3차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에는 시책의 방향성과 수치목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사항등이 기재되어있다.
- 안전안심마을만들기를 책임질 인재의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세대를 짊어질 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방법, 교통안전, 소비생활의 각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연구 등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활동에 힘쓰는 사업자를 등록하여 지역단체와의 매칭을 꾀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景観学習のようす

○ 경관만들기 관련조례 경관어드바이저 제도, 지원제도 등의 현상과 주요사례

- 현에서는 주민에게 양호한 경관을 형성 유지시키기 위해 아오모리경관조례를 1996년에 제정하여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조례에서는 현내의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관한 현과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위한 행위의 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등에 대해서 지원 및 의식개혁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 주민 사업자 시정촌의 경관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경관어드바이저 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 토목, 디자인, 녹지화 등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로써 매력 있는 경관만들기를 위해 계획입안에서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었다. (어드바이저의 사례 등은 현에서 지불)
- 1997년부터 48건의 활용사례가 있다. 아래 사진은 쿠로이시시의 사례(왼쪽 사진), 매력을 재생한 고미세도리(옛건물이 남아있는 거리, 오른쪽 사진), 교류관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마츠노유(대중목욕탕 이름)이다.



▲子供たちによる地域安全マップの作成状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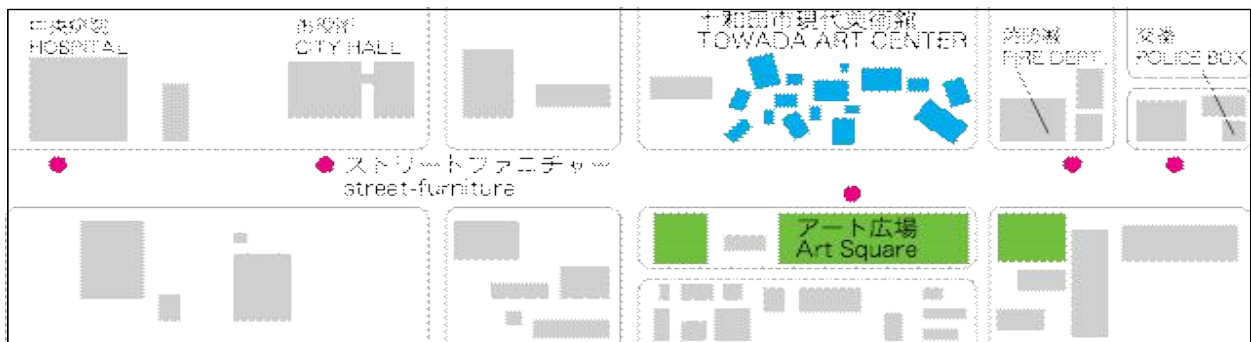
7. 도와다시의 예술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Arts Towada’

아오모리현 토와다시는 예술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Arts Towada’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Arts Towada’는 토와다시 중심상점가와 인접하여 1.1km의 상징거리 ‘관평가’ 전체를 미술관으로 만든 사업으로, 예술작품, 현대미술관, 예술프로그램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 봄 도와다미술관이 개관되고, 2010년 봄 미술관 주변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체험 가능한 대형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아트광장, 관평가보행로에 있는 스트리트퍼니처형의 아트작품들이 만들어 지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즐기면서 교류하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구 6만명의 시골도시는 개관 6년이 지난 지금 현재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고, 최근에는 신간센 개통 등으로 도쿄 근처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한다.

‘Arts Towada’는 시장의 예술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으며, 옛 전투 말을 육성하는 장소적 특성을 ‘Art’와 결합한 프로젝트이다. 특히, 대부분의 일본의 마을만들기에서 강조하는 주민으로부터의 사업이 아니라 시장의 판단과 끊임없는 시민을 향한 설득으로 지금의 결실을 맺었다.



자료 : 도와다현대미술관 홈페이지(<http://towadaartcenter.com/web/top.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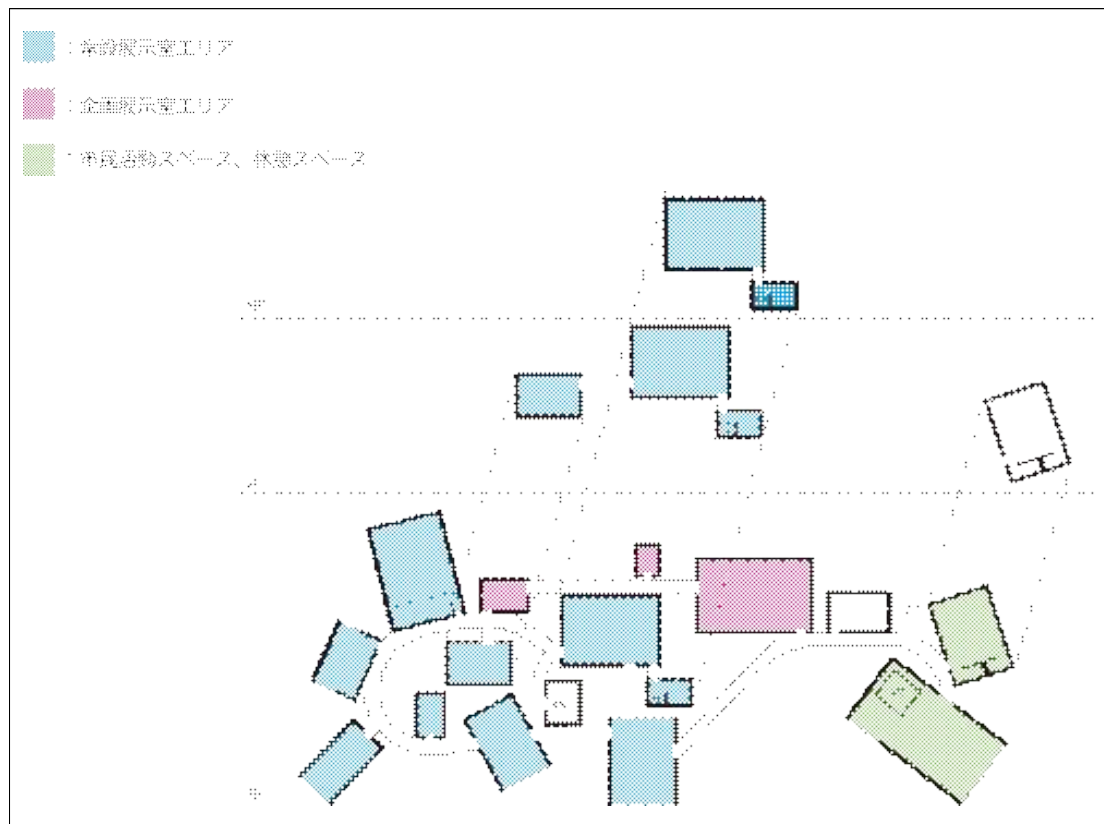
<그림> Arts Towada 야외예술존

□ ‘Arts Towada’의 입안 경위

□ 도와다시 현대미술관

- 2008년에 개관한 도와다시현대미술관은 ‘Arts Towada’ 핵심시설로써 마을만들기와 예술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에 기반하여 탄생되었다. 본 미술관은 예술을 통한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열린 시설로,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21인의 예술가들의 커미션워크 전시와 그밖에 예술문화 활동 지원과 교류를 촉진하는 거점시설로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체험공간, 시민활동공간, 야외이벤트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미술관의 특징은 각각의 전시실을 ‘예술을 위한 집’으로 독립시켜, 부지 내의 건물을 분산배치하고 유리 복도로 이어놓았다는 것이다. 각 전시실을 독립배치한 것은, 각각의 예술작품에 맞춰 건축공간을 만들어내고, 서로서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다.

- 이러한 분산형구성은 광장과 건물이 서로 연결하는 관청가 거리의 특징에 착안하여 얻은 것으로, 예술작품과 도시가 유기적으로 혼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건물은 크고작은 볼륨을 만들어 내고, 크고 작은 건물에 연속성을 부여하여 거리풍경과 연속성을 가지도록 조성하였다. 게다가 이 분산 배치에는 야외전시공간과 이벤트 공간을 만들어져 있어서, 방문자는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예술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은 여러 방향으로 커다란 유리문이 나 있어서 예술작품이 마을을 향하여 전시되고 있는 듯한 개방적인 구성이 된다.



자료 : 도와다현대미술관 홈페이지(<http://towadaartcenter.com/web/top.html>)

그림 80 도와다시현대미술관 건물배치

□ 개관이념

- 도와다시는 미래도시상을 ‘감동·창조도시-사람이 빛남, 자연이 빛남 거리의 개성이 빛나는 이상향-’을 내걸고, 자연·마음·살림살이·일·시민 ‘감동·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 이런 정신을 받들어 도와다시현대미술관은 현대예술을 활용하여 시민활동·시민문화·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나의 기본 이념과 3개의 활동이념을 내걸고 감동과 창조의 원동력이 있는 ‘Art Towad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기본이념 Art for vigor of Towada city

- ‘예술의 감동을 공유하는 마을 도와다’를 세계에 발신하고, 현대예술에 의한 마을 활성화, 시민을 처음방문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현대미술관운영을 지향한다.

□ 활동이념 Art of civic activity, civil culture, local economy

- 감동을 부르는 예술체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현대 예술의 숨결을 전달하면서, 참가형 이벤트 등 마을과 일체가 되는 사업을 전개하는 시민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 예술에 근간한 지역만들기에 대처하고, 개척하고 도시창조의 역사를 미래에 함께 연결하고, 국제적인 전람회나 이벤트를 실험하는 여러외국과도 교류하여 시민문화를 높인다.
- 관광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운영, 국외에서 수집한 작품과 함께 풍부한 자연경관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예술 / 디자인의 보금에 의한, 창조적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지역경제를 부흥하게 한다.

□ 미술관 예술작품

- ‘Arts Towada’에는 도와다시의 현대미술관과 관청가를 관통하여 ‘도시, 자연 그리고 예술의 공생’과 ‘예술을 통한 경험’을 컨셉으로 하여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예술작품을 설치되어 있다.
- 미술관에는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21인의 아티스트들이 도시와 자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22개의 예술작품이 전시되고 있고, 또한 예술작품은 미술관을 위해 제작되어,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예술작품과 공간이 깊게 연결되도록 만들었다.
- 예술작품은 전시실뿐 만 아니라 옥내외의 모든 공간에 전시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예술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예술광장과 스트리트 퍼니처

- 예술광장은 도와다시 현대미술관 근처의 3개의 큰 공지를, 예술을 이용하여 공원화한 광장이다. 광장에는 체험형 대형 아트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 또한 관청가를 관통하는 보행도로에는 아티스트와 건축가들에 의해 벤치형의 스트리트퍼티처(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어, 보다 매력적인 예술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관청거리를 걸어 다니며 예술작품을 즐기면서 관광을 할 수 있고, 관청가에서 주변거리로 연결되어 ‘Arts Towada’의 효과를 파급시키는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자료 : 도와다현대미술관 홈페이지(<http://towadaartcenter.com/web/top.html>)

그림 84 스트리트 퍼니처와 주변환경



※ 본 출장보고서 내용과 사진 중 특별히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자료는 출장 시 해당 기관에서 제공 받은 내부자료와 연구자가 촬영한 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리한 것임